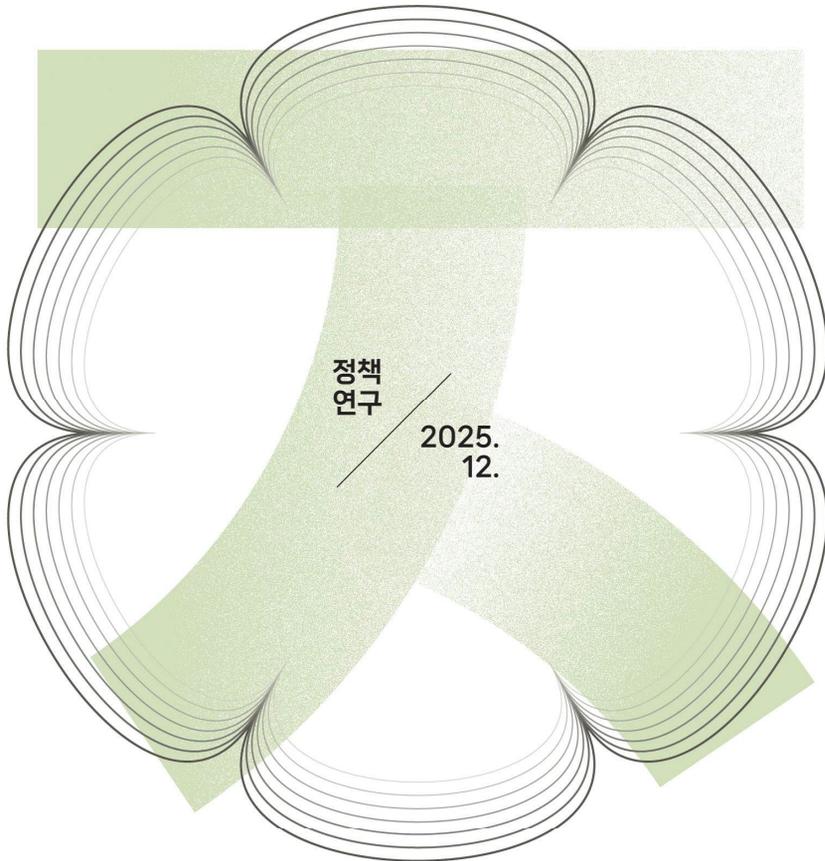


●●● 정책연구 2025-08

#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이연정·강길주·장유진





## 연구진 profile

---

이연정

- 연구책임
-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강길주

- 공동연구
-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장유진

- 연구지원
- 경제산업연구부 전문연구원

---



## | 요약 및 정책함의 |

■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도시경쟁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교류·협력은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현황과 제도적 여건을 진단하고,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김해형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김해시는 가야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 습지도시 등 차별화된 역사·문화·생태 자산을 보유하여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유리한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교류 분야의 편중, 전담 추진체계의 한계,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인한 제약이 존재함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로드맵**

○ **기본 방향**- 국제교류·협력의 전환(Transition), 연계(Integration), 체계(System)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김해

○ **단기(1~2년)**- 국제교류·협력 기반 정비 및 전략 수립 단계

김해형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제교류·협력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가야문화·유네스코 기반 시범사업 발굴·추진

○ **중기(3~5년)**- 국제교류·협력 확장 및 고도화 단계

지역 산업 연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본격화, 외국인 주민 참여형 생활 기반 국제교류 확대, 국제도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연계 강화

○ **장기(5년 이상)**-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 단계

국제교류·협력 성과의 정책 환류 체계 정착, (가칭) 김해 글로벌재단 설립 검토, 김해형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

■ **선행 과제**

○ 국제교류·협력을 도시 성장 전략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핵심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정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b>I 서론</b> .....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b>II 글로벌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의 이론적 검토</b> .....	<b>4</b>
1. 글로벌 도시의 개념 및 특징 .....	4
2. 국제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	7
3. 글로벌 도시 발전과 국제교류·협력 간 연계성 .....	10
<b>III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b> .....	<b>14</b>
1.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정책 환경 .....	14
2.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례 .....	27
3. 시사점 .....	38
<b>IV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b> .....	<b>42</b>
1.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현황 .....	42
2.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SWOT 분석 .....	50
3.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로드맵 .....	55
<b>V 결론 및 제언</b> .....	<b>64</b>
<b>참고문헌</b> .....	<b>67</b>
<b>부 록</b> .....	<b>69</b>



# I 서론

## 1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최근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역시 과거의 단순한 친선 교류나 의례적 교류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외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 국제교류·협력은 중앙정부나 국제기구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강점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glocal) 전략은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김해시는 역사·문화·환경·산업이 융합된 복합적 도시 자산을 토대로, 독자적인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망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김해시는 가야문화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이라는 독창적인 역사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공예와 민속예술) 지정과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화·생태 자산을 동시에 갖춘 도시임.
  - 여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되어 도시경쟁력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은 기관별 업무나 단기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해 왔음. 이로 인해 국제교류·협력이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 영역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김해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임
  -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을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일상생활을 국제교류·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시는 국제교류·협력을 단순한 도시 간 교류 차원을 넘어, 외국인 주민 정책, 산업·기술 협력, 도시 브랜딩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 정책 영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김해시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글로벌 도시 개념과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현황과 역량을 진단한 후, 김해시 특성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25년 기준  
(일부 자료는 2025년 이전 공표 연도 기준 병행 활용)
- 공간적 범위: 김해시 전역
  
- 주요 연구 내용
  - 국제교류·협력과 글로벌 도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례와 정책 동향 분석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현황과 제도적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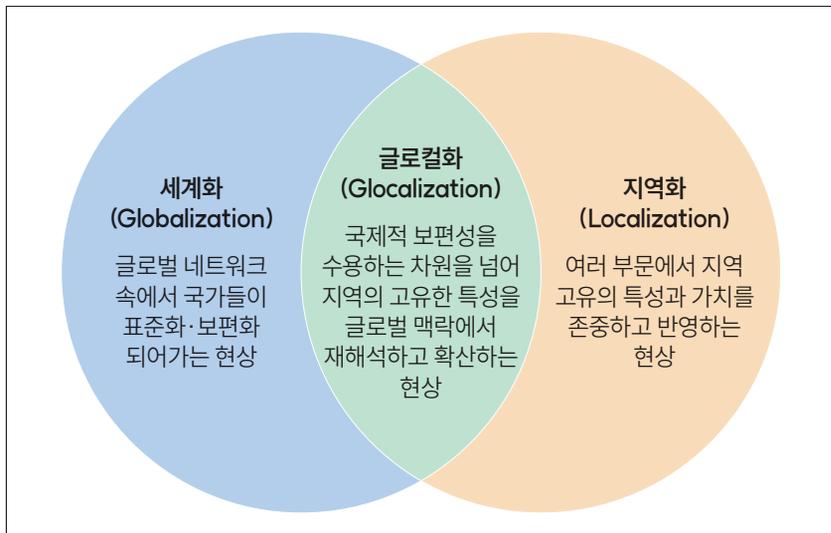
###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선행 사례 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료, 통계자료, 관련 법(조례) 및 계획 검토
  - 국내외 국제교류·협력 및 도시외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및 담당자 인터뷰
  -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 전문가 및 담당자 인터뷰

## II 글로벌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의 이론적 검토

### 1 | 글로벌 도시의 개념 및 특징

- ‘글로벌(Glocal)’이라는 용어는 Robertson(1995)이 제시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개념에서 비롯됨
  -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글로벌화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1980년대 후반 경영·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경제·정치 영역은 물론 사회·문화 현상 전반을 설명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확장·정착됨(홍순권, 2010)
  - Robertson(1995) 이후 다수의 연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화의 보완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음. 즉,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이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이 보유한 고유 자원을 글로벌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확산하는 과정으로 인식함



자료) Robertson(1995)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2-1) 글로벌 개념도

- ‘글로벌 도시(global city)’는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개념을 도시 경영 및 정책 관점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국제적 보편성(global competitiveness)과 지역의 고유성(local identity)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를 의미함
  - OECD(2023)는 글로벌 도시를 ‘국제 협력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장’으로 정의함
  - Swyngedouw, Baeten(2001)은 글로벌 도시를 ‘글로벌 연결성과 지역 고유의 특성이 상호보완적으로 도시의 정책, 경제, 문화 전반에 작용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 즉,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시로, 지역 고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 산업 등을 글로벌 가치사슬과 네트워크에 연계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모델임
  
-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 사례로는 두바이(Dubai), 칸(Cannes), 프라하(Prague) 등이 자주 언급됨. 이들 도시는 공통적으로 지역 고유의 자산을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강화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두바이(Dubai)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금융, 물류, 관광, 전시·컨벤션(MICE) 등 글로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도시임.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금융허브,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 세계적 관광도시로 기능하며, 지역의 고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한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임
  - 칸(Cannes)은 소규모 해안 도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문화 자산을 통해 극복한 사례임. 칸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을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라는 세계적 문화 이벤트로 확장하는 글로벌 전략을 통해,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함. 이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문화산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동시

에 성장시킨 사례로 평가됨<sup>1)</sup>

- 프라하(Prague)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호되는 도시경관과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과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 ICT 산업 등 현대적 산업을 발전시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음

○ 두바이, 칸, 프라하와 같은 글로벌 도시의 또 다른 공통적 특징은 국가명보다 도시명이 먼저 인식될 정도로 강력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UAE)라는 국가명보다 글로벌 금융, 관광,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도시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어 있음. 칸 역시 프랑스의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를 통해 도시명 자체가 세계 문화산업의 상징으로 인식됨. 프라하 역시 체코라는 국가 인지도와는 별개로 중세 역사 도시이자 유럽 문화관광의 중심지라는 독립적 도시 브랜드를 보유함
- 이는 글로벌 도시가 단순히 국가의 하위 공간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임을 의미함. 즉,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에서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도시의 핵심 특징임

1) 2024년 기준 칸 도시 인구는 약 75,000명 수준이나, 휴가철 및 칸 영화제 기간에는 방문객 증가로 인구수가 2~3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 국제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 1) 국제교류·협력의 개념

-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석환·이충희(2022) 등은 국제교류·협력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으로 정의함
  - 동 개념은 문화·예술, 관광, 교육,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공식적 협약에 기반한 상호 교류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신기현(1998), 김판석(2000) 등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단순한 외교 행위로 보기보다,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두 지역 간 상호 신뢰 형성과 협력을 구축하는 행위로 파악함
  -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제 확대 이후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개념이 ‘지방외교’ 또는 ‘도시외교’라는 용어로 확장되고 있으며, 활동 유형 역시 행사나 방문 중심의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보다 전략적이고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2024년 5월 외교부 내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되기도 함

### 2) 국제교류·협력의 유형

- 국제교류·협력은 교류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교류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으로 구분됨

- 자매결연은 비교적 성숙한 단계의 협력 관계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교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우호협력은 본격적인 교류 이전 단계에서 상호 신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적 협력 형태로 볼 수 있음(우양호·이정석, 2010)<sup>2)</sup>
- 한편, 국제교류·협력은 내용과 활동 방식에 따라 상호 연계·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행정교류, 인적·청소년 교류, 문화예술교류, 관광교류, 스포츠교류, 기술·학술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구분함
  - 행정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간 대표단 상호 방문, 행정정보 교류, 교류 기념식, 연락사무소 설치 등 행정 전반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교류 유형임
  - 인적교류는 공무원 파견 및 연수, 대학생 교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체류 외국인을 위한 상호협약 등 사람을 매개로 한 교류 유형임. 청소년교류는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 인턴십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적 교류 형태임
  - 문화예술교류는 축제·행사, 예술단 공연, 전시회, 문화예술 강좌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대표적인 국제교류·협력 유형임. 관광교류 역시 관광물산전 개최, 관광객 유치 활동, 관광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방문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임
  - 스포츠교류는 친선대회, 국제대회 개최, 스포츠 교류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와 도시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방식임. 다른 유형에 비해 언어와 문화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역 스포츠 산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됨
  - 기술·학술교류는 학술교류 협약, 국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기술연수와 산업연수 등을 포함함.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에서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산업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

2) 이러한 개념에 따라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매도시'를 '도시 간 우호체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로 정의함. 또한 '우호도시'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로 정의하며, '자매도시'가 '우호도시'보다 더 높은 도시 간 교류협력 수준임을 명시함

- 경제교류는 경제교류 협정 체결, 경제개발협력 협의, 시장개척단 파견, 산업시찰, 상품전시관, 수출입상담회, 투자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적 목표로 하는 교류 유형임
- 이 외에도 민간단체교류는 시민단체·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 부문 간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유형임. 상징사업은 공원 조성, 거리 명명, 명예시민증 수여 등 상징적 행위를 통해 도시 간 교류 관계를 가시화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임. 기타 유형으로는 언론취재, 봉사활동, 성금·원조, 동물기증 등이 있으며, 최근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류 역시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유형으로 포함됨

<표 2-1> 국제교류협력의 유형

분야	항목 예시
행정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정보교류, 교류기념식, 연락사무소 설치 등
인적교류	공무원파견, 연수, 대학생교류, 유학생유치, 체류외국인을 위한 상호협약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어학연수, 국제인턴십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행사, 예술단 공연, 전시회, 문화예술 강좌 등
관광교류	관광물산전, 관광유치, 관광사무소 개설 등
스포츠교류	친선대회, 국제대회, 스포츠교류단 등
기술·학술교류	학술교류 협약,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기술연수, 산업연수 등
경제교류	경제교류협정 체결, 경제개발협력 협의, 시장개척단 파견 및 산업시찰, 상품 전시관, 수출입상담회, 투자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민간단체교류	시민단체, 예술협회, 의사회 등 민간단체 간 교류, 대학 간 교류 등
상징사업	공원조성, 거리 명명,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온라인 교류 및 홍보, 언론취재, 봉사활동, 성금·원조, 동물기증 등

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국제교류협력 통계자료는 인적교류와 청소년교류를 구분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두 유형을 구분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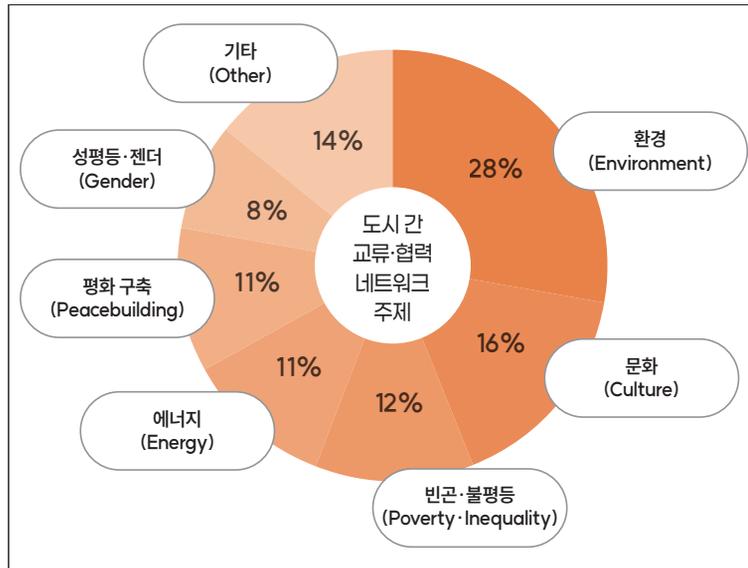
자료) 정낙현·이홍규(2008), 김상규(202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3 | 글로벌 도시 발전과 국제교류·협력 간 연계성

- 글로벌 도시(global city)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강점을 지니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를 의미함
  - 한편,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자산을 국제 수준의 역량, 네트워크, 브랜딩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국제교류·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obertson, 1995; OECD, 2023; UCLG, 2020)
- 기존의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종합하면,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 경로 1-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 국제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스로 외교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외교(city diplomacy)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발전에 기여함
  -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사회적 불평등 등 전 지구적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로 대응해 온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시)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Pluijm & Melissen, 2007; Acuto & Rayner, 2016)
  - Acuto & Rayner(2016)는 세계 17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주제가 환경(28%), 문화(16%), 빈곤·불평등(1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도시) 차원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시 간 연계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다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OECD, 2023). 이는 도시의 정책 조정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을 촉진함



자료) Acuto & Rayner(2016) 재인용

(그림 2-2) 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주제

## ▣ 경로 2- 정책 학습 및 혁신 촉진

- 도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다른 도시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학습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함
  - 동료 간 학습(peer-to-peer learning)과 유사한 도시 간 정책 학습 경험은 도시의 혁신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함 (OECD, 2023)
  
- 즉, 국제교류·협력이 형식적인 방문이나 의례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며, 공동연수, 현장 학습,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정책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2024)은 도시 간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 학습이 지방자치단체(도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 품질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함

### □ 경로 3-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

- 도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문화적 교류를 넘어, 지역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 OECD(2023)는 도시 간 파트너십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특히 공동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활동이 지역 기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고 분석함
  -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경제적 협력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관광, 숙박,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 물류, 첨단산업 등 전 산업 부문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함
  
- 더 나아가 국제교류·협력은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 툴루즈(Toulouse)는 유럽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 도시로, 대규모 국제행사(Le Bourget Air Show, Toulouse Space Show 등)와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Aerospace Valley)<sup>3)</sup>를 중심으로 국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 □ 경로 4-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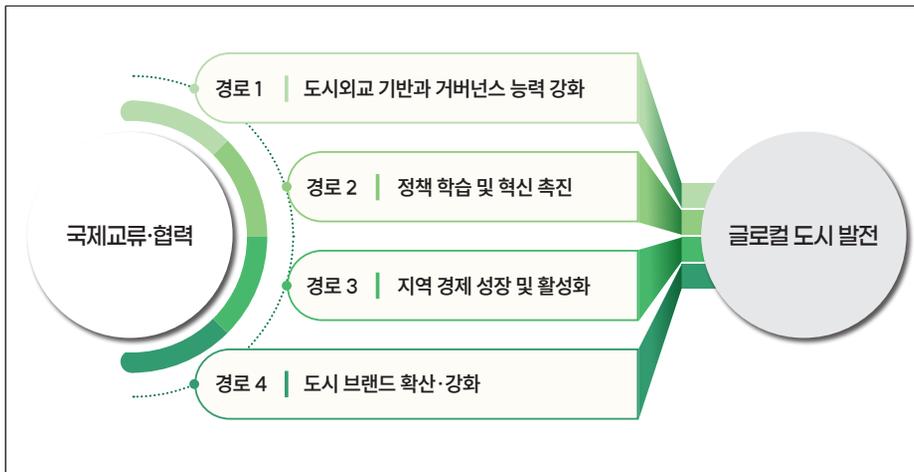
- 도시의 국제교류·협력은 도시 이름을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글로벌 도시 발전에 기여함. 즉,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를 통해 도시 브랜드가 강화·확산될 경우, 도시명 자체가 특정 산업 또는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나타남
  -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칸 영화제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한 프랑스 칸(Cannes)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도시로서 국제 관광과 문화 교류를 지속해 온 체코 프라하(Prague) 등은 정례화된 국제행사와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확산한 대표적 사례임 (Getz, 2008)

3) Aerospace Valley는 유럽 최대 수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2025년 9월 기준 593개 기업이 참여하는 1,070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Aerospace Valley 홈페이지 참조)

<표 2-2> 국제교류와 글로벌 도시 발전 간 연계 경로

구분	주요 내용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능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주체화 - 다층적 협력 체계(Multi-level Governance) 강화
정책 학습 및 혁신 촉진	- 타 도시의 정책 경험 및 성과 학습 - 공동연수, 시범 사업 등을 통한 도시의 혁신 촉진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	-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국제화 촉진 및 투자 유치 - 국제행사, 경제 협력 프로젝트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	- 도시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 반복적·장기적 국제교류를 통한 도시 브랜드 지속성 확보

자료) 선행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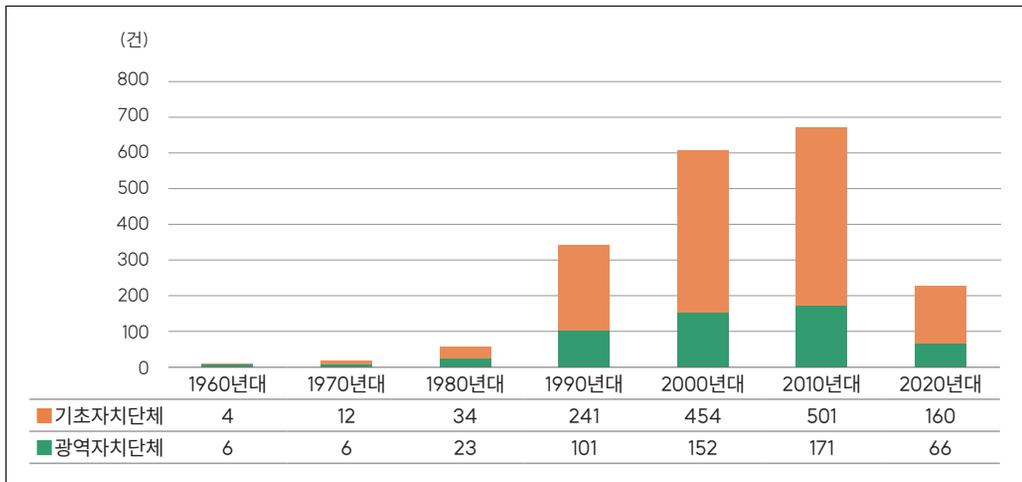
(그림 2-3) 국제교류와 글로벌 도시 발전 간 연계 경로

### III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

#### 1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정책 환경

##### 1) 국제교류·협력 현황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자매·우호 협력 결연 현황 기준으로, 1960년대 총 10건(광역자치단체 6건, 기초자치단체 4건)에 불과했던 자매·우호 협력 결연 건수는 1990년대 총 342건(광역자치단체 101건, 기초자치단체 241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 이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 협력 결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연 건수가 이전 시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자매·우호 협력 현황

○ 누적 기준으로 2025년 11월 현재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92개국, 1,416개 도시와 총 1,932건의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자매·우호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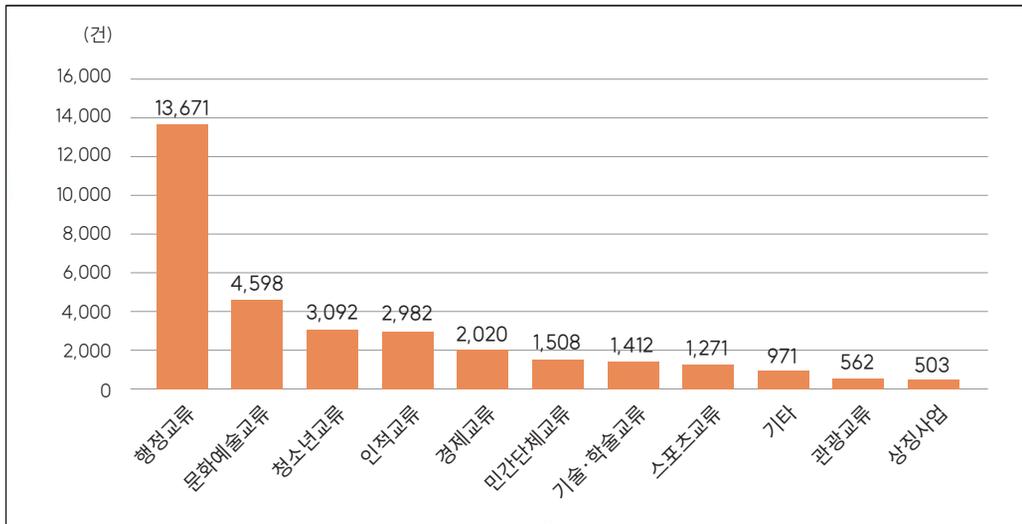
구분	구분	결연대상		소계 (중복체결 국가·도시 제외)
		외국 국가	외국 도시	
합계	광역(17)	81	386	92개국, 1,416개 도시, 1,932건
	기초(221)	73	1,088	
서울	광역(1)	51	78	62개국, 248개 도시, 265건
	기초(25)	35	170	
부산	광역(1)	41	51	41개국, 103개 도시, 107건
	기초(15)	11	52	
대구	광역(1)	14	27	19개국, 53개 도시, 54건
	기초(8)	9	27	
인천	광역(1)	19	39	23개국, 105개 도시, 109건
	기초(10)	13	68	
광주	광역(1)	14	26	15개국, 41개 도시, 41건
	기초(5)	3	15	
대전	광역(1)	28	39	29개국, 53개 도시, 54건
	기초(5)	5	14	
울산	광역(1)	15	21	21개국, 46개 도시, 46건
	기초(4)	13	25	
세종	광역(1)	6	7	6개국, 7개 도시, 7건
	기초(0)	0	0	
경기	광역(1)	26	44	41개국, 258개 도시, 271건
	기초(31)	35	215	
강원	광역(1)	16	31	31개국, 153개 도시, 155건
	기초(18)	27	122	
충북	광역(1)	11	18	18개국, 80개 도시, 80건
	기초(11)	13	62	
충남	광역(1)	15	32	27개국, 144개 도시, 147건
	기초(15)	19	112	
전북	광역(1)	5	11	15개국, 87개 도시, 90건
	기초(14)	15	76	
전남	광역(1)	13	31	30개국, 159개 도시, 164건
	기초(21)	25	128	
경북	광역(1)	18	30	33개국, 161개 도시, 169건
	기초(21)	27	132	
경남	광역(1)	15	24	31개국, 156개 도시, 158건
	기초(18)	26	132	
제주	광역(1)	9	15	9개국, 15개 도시, 15건
	기초(0)	0	0	

주) ( )안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수를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81개국, 386개 도시와 기초자치단체는 73개국, 1,088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체계를 보완하면서 독자적인 국제교류·협력의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의 내용과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의례적 행정교류 등 우호 결연 중심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경제교류, 관광교류 등으로 영역이 다변화되고 있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제교류·협력 분야별 누적 현황을 보면, 2025년 11월 현재 전체 32,590건 중 행정교류가 13,671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류 4,598건(14.1%), 청소년교류 3,092건(9.5%), 인적교류 2,982건(9.2%), 경제교류 2,020건(6.2%)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는 총 6,074건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함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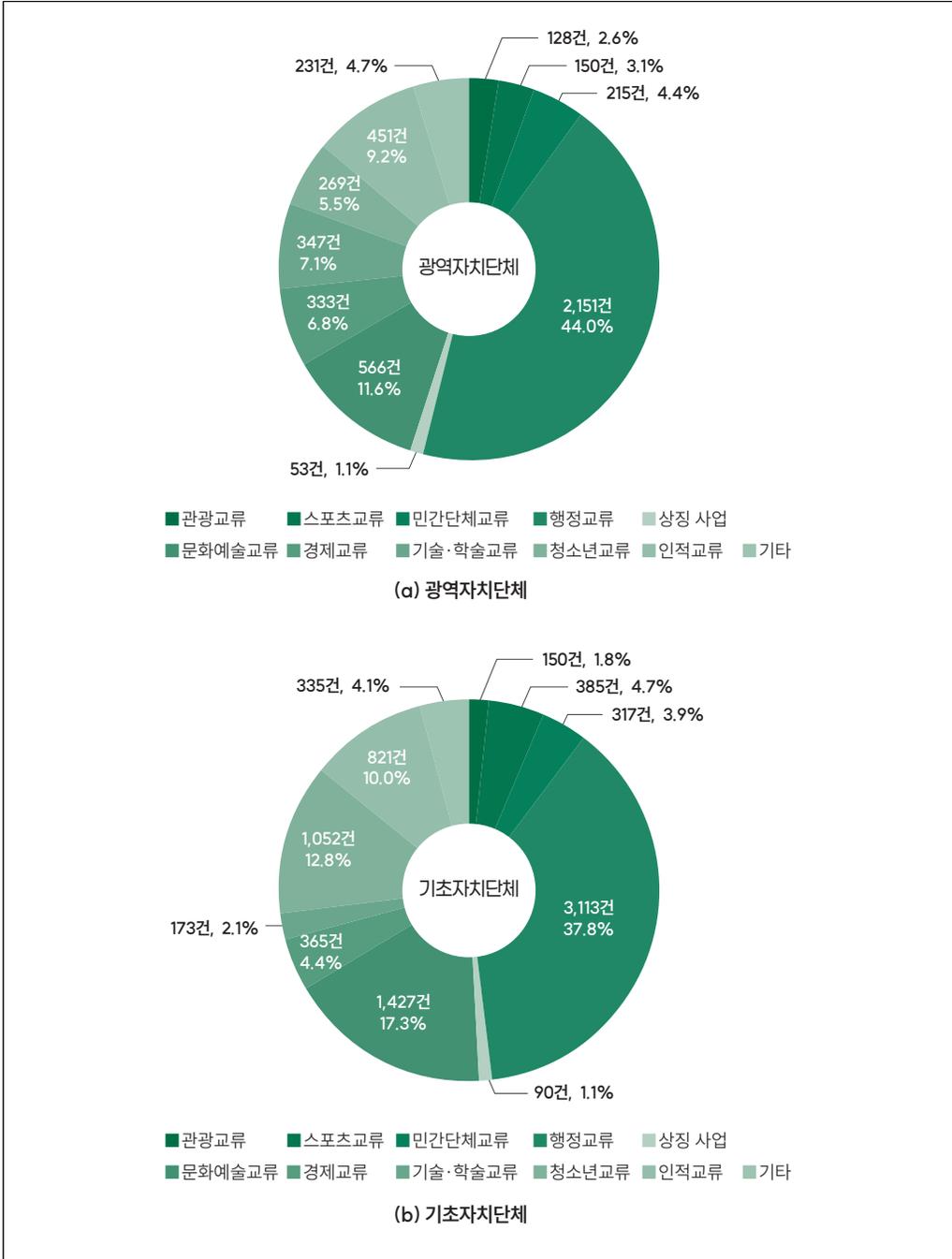
(그림 3-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분야별 현황

- 성태규 외(2006), 김상규(2024)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강조함.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방식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뚜렷한 구분이 나타나기보다는, 분야별 중점 영역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경향을 보임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분야별 빈도와 비중을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행정교류와 문화예술교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교류 비중은 전체의 44.0%(2,151건)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교류 비중 37.8%(3,113건) 보다 6.2%p 높은 수준임
  - 문화예술교류 비중은 기초자치단체가 17.3%(1,427건)로 광역자치단체 11.6%(566건) 보다 5.7%p 높았음. 청소년교류와 인적교류, 스포츠교류도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경제교류나 기술·학술교류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치단체 유형별로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표 3-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국제교류·협력 분야 비교(2014-2023년)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빈도(건)	비중(%)	빈도(건)	비중(%)
행정 교류	2,151	44.0	3,113	37.8
문화예술교류	566	11.6	1,427	17.3
청소년교류	269	5.5	1,052	12.8
인적교류	451	9.2	821	10.0
경제교류	333	6.8	365	4.4
민간단체교류	215	4.4	317	3.9
기술·학술교류	347	7.1	173	2.1
스포츠교류	150	3.1	385	4.7
기타	231	4.7	335	4.1
관광교류	128	2.6	150	1.8
상징 사업	53	1.1	9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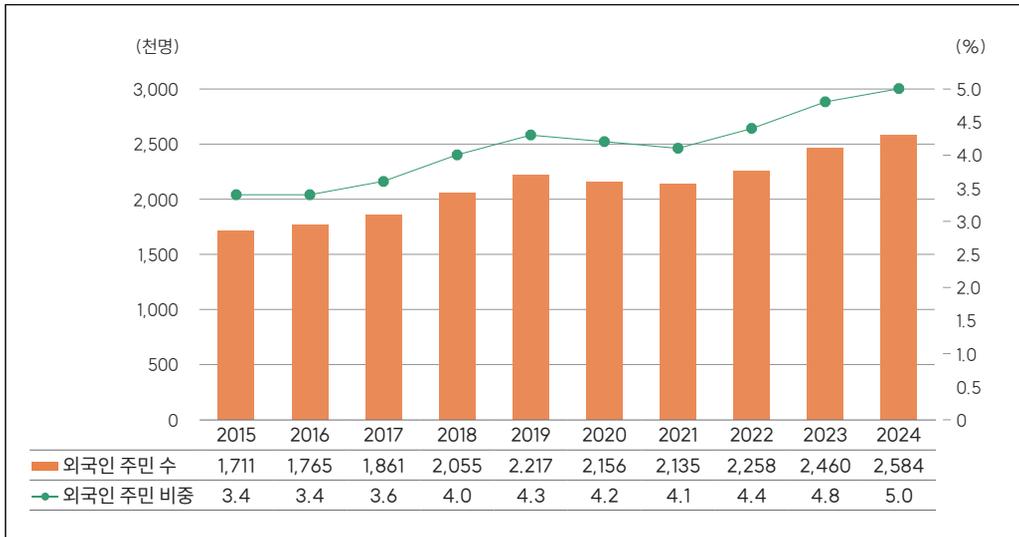
자료) 김상규(2024) 재구성하여 연구진 작성



자료) 김상규(2024) 재구성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국제교류·협력 분야 비교(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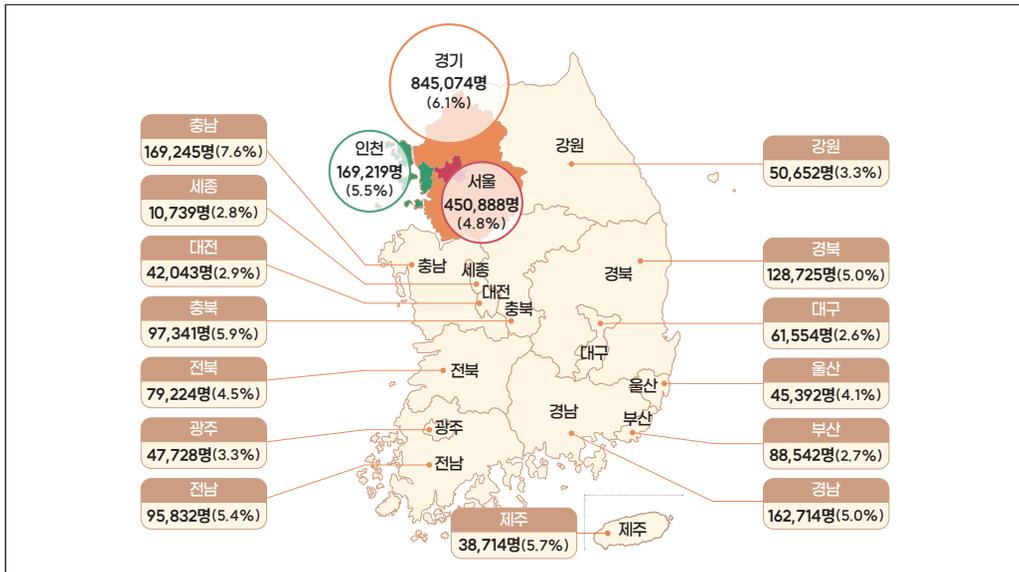
-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의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주민 증가를 들 수 있음<sup>4)</sup>
  - 행정안전부(2025)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5,180만 5,547명)의 약 5.0%를 차지함<sup>5)</sup>. 이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외국인 주민 수 53만 6,627명(총인구의 1.1%) 대비 약 4.8배, 2015년 171만 1,013명(총인구의 3.4%)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56.7%(146만 5,181명)가 수도권(경기 84만 5,074명, 서울 45만 888명, 인천 16만 9,219명)에 거주하고 있음.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은 충남 7.6%, 경기 6.1%, 충북 5.9%, 제주 5.7%, 인천 5.5%, 전남 5.4%, 경북·경남 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행정안전부(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4)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2015-2024년)

- 4)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정한 행정·통계 용어로, 외국인 주민 통계는 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② 한국국적 취득자, ③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를 포함하여 작성함
- 5) 해당 총인구는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 기준 시점인 2024년 11월 1일 전후 3개월 미만 국내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로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2025)

(그림 3-5)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2024년)

- 특히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경남은 해당 지역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이 5%를 상회하면서도,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남

○ 외국인 주민 비중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을 결합한 정책 추진 사례가 다수 확인됨<sup>6)</sup>

<표 3-3> 외국인 주민 수-총인구 대비 비중 간 매트릭스

구 분	해당 지역 총인구 대비 비중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외국인 주민 수	10만명 이상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서울	-	-
	10만명 미만 5만명 이상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부산, 대구
	5만명 미만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대전
	3만명 미만	-	-	-	세종

자료) 행정안전부(2025)

6)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이 결합된 주요 사례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 2) 국내 제도·정책 환경

### (1) 법적 기반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관한 법적 기반은 「지방자치법」과 「공공외교법」에 명시되어 있음.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지방자치법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를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제19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법률상 자치사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임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방문이나 우호 교류 중심 활동을 넘어, 정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도시·기관과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국제교류·협력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임

#### ○ 지방자치법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 파견, 운영비용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국제기구의 행사나 회의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여젠다 참여를 통한 정책 학습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됨

#### ○ 지방자치법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제19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현지 거점을 활용한 도시홍보, 기업지원, 유학생 교류 등 현지 기반 국제교류·협력 플랫폼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현지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됨

<표 3-4> 「지방자치법」 제10장 국제교류·협력 관련 내용·의미

구분	조문 내용	의미
지방자치법 제19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자치사무로 법적 보장</li> <li>• 단순 의례적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국제교류·협력 활동 수행 가능</li> <li>•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도시·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권한 제공</li> </ul>
지방자치법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li> <li>•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행사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여젠다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li> <li>• 공무원 파견을 통한 국제정책 학습·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교류 전문성 강화</li> </ul>
지방자치법 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p>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현지 거점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국제협력 체계 운영 가능</li> <li>• 해외사무소를 통한 도시홍보, 기업지원, 유학생 교류 등 현지형 국제교류·협력 플랫폼 운영 가능</li> <li>•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행정중심에서 현지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li> </ul>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으로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를 국가만의 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다층적 외교 구조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이 국가 공공외교 체계의 일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함
  - 즉,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공공외교의 협력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가 외교정책의 공적 영역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공공외교법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제1항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제2항 제5호에서는 해당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전략 간 제도적 연계 및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함
  
- 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제9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함

<표 3-5> 「공공외교법」 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의미

구분	조문 내용	의미
공공외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를 공공외교의 공식적 협력 주체로 명시</li> <li>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국가 외교정책의 일부로 기능함을 의미</li> <li>국제교류·협력 활동의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li> </ul>
공공외교법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략)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li> <li>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행사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어젠다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li> <li>공무원 파견을 통한 국제정책 학습·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교류 전문성 강화</li> </ul>
공공외교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근거</li> <li>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국제기구 협력 활동 규모 확대 가능</li> </ul>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조례 및 기본계획 기반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지속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단순한 관행적 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경제, 복지, 교육, 외국인 정책 등과 연계된 정책적 공공사무임을 시사함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 중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국제교류·협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제도화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 광역지자체 조례의 공통적 특징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의 기본 원칙 명시, 단체장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자매·우호도시 관리 및 교류사업 체계화, 국제행사 유치·협력 절차 규정, 민간단체 및 시민 참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도시발전의 중장기적·전략적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대구와 제주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본 조례는 없지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등 국제교류·협력의 세부 유형 중심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표 3-6> 광역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본 조례

구분	조례 명칭	제정일	소관부서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14	도시외교담당관
부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015.08.12	국제협력과
인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014.10.06	국제협력과
광주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01.01	-
대전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20.10.14	-
울산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011.01.06	투자유치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2.07.02	대외협력담당관
경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1	국제협력정책과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2015.10.08	-
충북	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1.07.06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2004.11.12	외국인국제정책과
전남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0.27	국제협력관
경북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5.09.24	-
경남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07.06	국제통상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서산시, 완주군, 나주시, 포항시, 창원시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도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 조례 제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또한 오산시, 여주시, 강릉시, 공주시, 울진군, 김해시 등 일부 지역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포괄하는 행태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국제교류·협력의 비전과 목표, 추진 체계, 분야별 전략, 단계별 실행과제, 성과관리 체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이 단년도 사업을 넘어 도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된 정책 부문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서울시는 국내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도시외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됨. 2017년 발표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2020)’은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기여, 민관협치 기반 도시외교 추진, 동북아 평화·번영 기반 조성, 도시외교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음<sup>7)</sup>
  - 부산, 울산, 대전 등은 국제교류·협력을 독립된 기본계획으로 다루기보다는 국제화 추진계획 등 상위 계획 내 하나의 중점 영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함

7) 이후 서울시는 정책환경 변화와 국제도시 네트워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두 번째 중장기 전략인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으며, 국제기구 협력 확대도시 브랜드 제고·글로벌 의제 대응 등 보다 고도화된 도시외교 전략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동 계획은 2025년 11월 기준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2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례

-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과거 행정 중심의 의례적 교류에서 벗어나,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활동으로 발전해 왔음.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딩, 외국인 정책, 국제기구·국제규범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유형도 고도화되는 추세임
- 본 절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부문 중에서도 ① 경제·산업, ② 문화·관광·브랜딩, ③ 외국인 정책, ④ 국제기구·정책 아젠다와 연계된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sup>8)</sup>

### 1) 경제·산업

#### ■ 안산시(경기)- 지역 기업 육성과 기술협력을 위한 안산-독일 간 교류·협력<sup>9)</sup>

- 안산시의 경제·산업 부문 국제교류·협력 사례는 글로벌 도시 발전 경로 중 특히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와 연관됨
- 독일 아헨특구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히든챔피언 육성
  - 안산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의 공업 도시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아헨특구시와 2017년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2019년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함. 또한 2020년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독상공회의소(KGCC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안산-독일 도시 간 파트너십 형성은 헨켈홈케어코리아, 한국바스프 안산 공장 등 기존에 입지한 독일계 제조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공급망 연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함

8) 참고로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자치단체 사례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우수사례 선정 내용 중 일부를 추가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임

9) 안산시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산업지원본부(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과) 등이 수행하고 있음

○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협력

- 안산시는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능형 전자섬유(스마트 텍스트로닉스)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함. 2017년부터 5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아헨공대가 참여한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센터’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경기테크노파크 내 연구센터 설치와 함께 아헨 현지에도 대응센터를 조성하여, 양 도시 간 상시 연구·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총사업 규모는 국비·도비 176억원과 독일 측 약 2,900만 유로(추정)로 파악됨
- 동 센터는 사업기간 동안 특허출원·등록 122건, 기업 기술지원 82건, 기술이전 11건, 시제품 제작 55건, 우수 학술 발표 49편, 교육 수료 302명 등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됨



자료) 안산시 보도자료(2017, 2020)

(그림 3-6) 경제·산업 기반 국제교류·협력 사례- 안산시(경기)

▣ **순창군(전북)- 소프트테니스 중심 국제교류·협력으로 스포츠산업 도시 구축<sup>10)</sup>**

- 순창군 사례는 소프트테니스 등 스포츠산업 기반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로와 연관성이 높음

10) 순창군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체육진흥사업소(스포츠마케팅)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지역 특화 종목을 활용한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 순창군은 지역 대표 종목인 소프트테니스를 중심으로 해외 종목단체 및 국가대표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 우수한 실내·실외 경기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선수단을 유치하여 훈련 프로그램, 기술 교류, 코칭 역량 강화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 소프트테니스연맹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합동훈련, 지도자 교류, 기술협력, 국제대회 공동참여 등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

○ 국제대회 정례화 및 해외 인재 영입을 통한 지역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순창군은 ‘순창오픈 국제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를 정례화하여 국제 종목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대회 참가국은 2023년 8개국에서 2024년 12개국으로 확대됨. 또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선수 등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선진 기술을 지역에 도입하는 동시에, 순창군을 단순한 전지훈련지가 아닌 국제교류형 스포츠산업 육성 모델로 고도화하고 있음



자료) 순창군 보도자료(2022, 2024)

(그림 3-7) 경제·산업 기반 국제교류·협력 사례- 순창군(전북)

## 2) 문화·관광·브랜딩

### ▣ 충청남도-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한·일 간 교류·협력<sup>11)</sup>

- 충청남도의 문화·관광 부문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글로벌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학습 및 혁신 촉진’,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 경로와 연관성이 높음
  
- 백제-아스카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협력 모델
  - 충청남도과 일본 나라현 간 교류는 2009년 우호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백제와 아스카 시대의 역사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방문 교류가 어려운 시기에도 온오프라인을 결합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으며, 지역 내 고등학생, 대학생 등 MZ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사실상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였음
  
- 문화관광경제를 결합한 복합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 충청남도는 나라현과의 문화공연 및 청소년·청년 교류를 기반으로, 관광 홍보 및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복합형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문화교류 행사와 연계한 관광지 홍보, ‘방문의 해’ 마케팅을 병행,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문화 교류가 관광 수요 확대와 기업 수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함. 이를 통해 문화 중심 교류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확장하는 입체적 지방외교 체계를 구현하고 있음

11) 국제교류·협력 활동 유형이 확장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정책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을 중심으로 개발전략과, 외국인정책과, 산림자원과, 해양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미래산업과, 문화정책과 등 다수의 부서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2025)

(그림 3-8) 문화·관광·브랜딩 중심 국제교류·협력 사례- 충청남도

■ 제주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도시 브랜딩<sup>12)</sup>

- 해녀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는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 경로 중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와 연관성이 높음
- 해녀문화 기반의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국제교류·협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함.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도는 유네스코 및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협력하여 국제해녀포럼, 해외 순회전시, 해녀문화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해양과 여성, 공동체 문화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왔음
  - 그리고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해양공동체 문화를 가진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며, 문화유산 보호, 해양생태 보전, 여성 공동체 연구 등을 주제로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글로벌 도시 브랜딩 및 관광·산업 연계 국제협력 강화
  - 제주도는 해녀문화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을 도시 브랜딩 전략과 연계하여

1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평화외교과, 관광산업과,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경제정책과, 환경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청년정책담당관,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 한라산연구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음

문화 교류가 관광 홍보, 국제관광객 유치, 문화콘텐츠 산업 진출로 이어지는 복합형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해녀 체험, 해양환경 교육, 지역공동체 탐방 등 현장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국제교류·협력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 이는 제주의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도시경쟁력과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3, 2024)

(그림 3-9) 문화·관광·브랜딩 중심 국제교류·협력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 3) 외국인 정책

#### ▣ 전북특별자치도- 유학생 정주 기반 및 지역사회 연계 교류·협력<sup>13)</sup>

-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는 외국인 정책 연계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으로서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책 학습 및 혁신 촉진’ 경로와 밀접히 연관됨
- 유학생 정주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생활 기반 국제교류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국제교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있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상담, 문화체험, 지역기업 탐방 등 정주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유학생과 지역

13)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대외국제소통국 내 대외협력과 및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유산관리과, 기업유치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체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등이 수행하고 있음

주민 간 상호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함

- 또한 글로벌 유학생 서포터즈, 유학생 자원봉사단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학생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산업을 SNS 및 본국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지역 홍보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유학생이 사실상 지역의 매력과 경험을 전달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기능하며, 전라북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다문화·외국인 주민정책과 연계한 지역 국제화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생-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정’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유학생이 지역 초·중학교에서 모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언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유학생 정책, 다문화 정책, 국제교류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임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3, 2025)

(그림 3-10) 외국인 정책 연계 국제교류·협력 사례- 전북특별자치도

▣ 영동군(충북)-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국제교류·협력<sup>14)</sup>

- 외국인 근로자 교류를 중심으로 한 영동군 사례는 글로컬 도시로의 발전 경로 중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 경로와 연관성이 높음

14) 영동군의 국제교류·협력은 민간협력팀, 농업인력지원팀, 여성정책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해외 도시 협력 기반 외국인 근로자 교류 체계 구축

- 영동군은 지역 산업과 직결된 농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해외 지방정부와 공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국제교류·협력의 한 축으로 전략화함. 영동군은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법적 외국인 인력 유치 체계를 마련하고,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그리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영동군이 지역에 부족한 노동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 단순히 해외 국가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해외 국가들과 기술·문화 교류 기반의 국제협력 모델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함

○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영동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근로 상담, 통역 지원, 안전교육 등 실효적인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안정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와인축제, 국악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a) 영동군-몽골 간 외국인 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b) 영동군-필리핀 두마게티시 간 우호 협약

자료) 영동군 보도자료(2022, 2025)

(그림 3-11) 외국인 정책 연계 국제교류·협력 사례- 영동군(충북)

- 이는 인력 부족이라는 지역 현안을 매개로 해외 인력 유입이 지역 정주와 상호 이해 형성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국제교류·협력 사례로 볼 수 있음

#### 4) 국제기구·정책 아젠다

##### ▣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정책 기반 국제교류 협력<sup>15)</sup>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천광역시 사례는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책 학습 및 혁신 촉진’ 경로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과 연관성이 높음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용한 글로벌 정책 아젠다 대응 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UN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GCF(녹색기후기금),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가 집적된 국내 유일의 도시로 평가됨
  -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는 국제기구 공동포럼 개최, 정책연구 협력사업 기획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의제와 대응을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함
- ‘국제기구-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15개 국제기구의 협의체인 인천국제기구협의체(IIO)를 운영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 글로벌 NGO 등을 정례적으로 연결하여 정책 교류, 협력 사업 발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제 행사·포럼 중심의 교류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지역 현안과 결합하여 기후·환경 교육, 국제개발협력(ODA) 시민참여 프로그램, 청년 인턴십, 지역 공공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5) 인천광역시의 국제교류 협력 업무는 글로벌도시국(글로벌도시기획과, 투자유치과)과 국제협력국(국제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다문화사회과, 관광마이스과, 국제행사추진단)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또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과, 해양환경과, 물류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체육진흥과 등도 일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2, 2025)

(그림 3-12) 국제기구·정책 아젠다 연계 국제교류·협력 사례-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협력<sup>16)</sup>

-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평화 도시 브랜드 구축은 글로벌 도시 발전의 ‘도시외교 기반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 ‘도시 브랜드 확산·강화’ 경로와 연관성이 높음
- 글로벌 민주주의·인권 협력 체계 구축
  -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국제교류협력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시켜 왔음
  - 특히 2011년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공식화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인권도시네트워크(ICORN) 등의 국제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국제정책 플랫폼 운영 및 지역 정책 환류
  -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논의된 글로벌 인권 정책 의제를 지

16) 광주광역시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국제교류담당관과 민주인권평화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과, 문화정책과, 콘텐츠산업과 등도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역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정책안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정책 아젠다 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5)

(그림 3-13) 국제기구·정책 아젠다 연계 국제교류·협력 사례- 광주광역시

### 3 |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주요 추진 사례를 종합하면, 김해시가 향후 국제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 국제교류·협력의 목적과 도시발전 전략의 정합성 확보

- 국제교류·협력 현황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과거 의례적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문화, 외국인 정책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음
- 김해시는 가야문화·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태 자산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외국인 근로자 등 복합적 도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교류·협력의 목적을 도시발전 전략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문화는 지역의 고유성 강화,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외국인 정책은 지역통합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 국제정책 아젠다는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분야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국제교류·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임

#### ▣ 김해시 고유의 역사·문화·생태 자산 활용

- 충청남도(백제-아스카)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제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화행사 수준을 넘어 관광, 도시 브랜딩, 경제협력으로까지 확장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결합될 때 파급력이 크게 강화됨을 시사함
- 김해시는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하여 가야사 복원사업, 동아시아 고대문화권과의 연계 가능성 등 국제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역사·문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일본 규슈지역의 고분문화권이나 동남아 고대도시권과의 역사·문화적 공통성은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강점임
  - 또한 김해시는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지정되어 있어, 글로벌 문화협력 부문의 공식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아울러 김해시 화포천 일원은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되어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생태관광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핵심 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등의 고유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동 전시, 학술교류, 교육, 생태·환경 프로그램 등으로 국제교류·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김해시는 ‘가야문화 기반의 역사·생태 융합형 글로벌 교류도시’라는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인지도 제고는 물론 관광·문화산업 및 생태자원 활용을 포괄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김해시 산업구조정책과의 연계

- 최근 국제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경제교류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안산시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국제공동연구나 순창군의 스포츠산업 국제화 사례 외에도 국제교류·협력이 지역 산업정책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이는 국제교류·협력이 더 이상 의례적 외교 활동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 김해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공동 R&D, 글로벌 기업·대학과의 협력망 구축 등 산업형 국제교류·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특성과 김해시의 경제

정책 방향을 국제교류·협력 전략과 정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를 고려한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확대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주요 교류협력 주체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구성하는 주요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외국인 주민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전북의 유학생 기반 교류나 영동의 외국인 근로자 중심 생활형 국제교류 사례처럼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이 결합된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김해시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 지역 대학 유학생 증가 등 외국인 주민 기반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단순한 정주·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주민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할 경우, 외국인 주민은 지역의 국제화 과정에서 사실상의 민간 외교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김해시가 다문화·포용 기반의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 국제기구·글로벌 아젠다와 연계한 정책 기반 국제교류 역량 강화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환경, 인권·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SDGs) 등 글로벌 정책 아젠다에 대응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협력, 글로벌 정책 포럼 개최, 국제정책 네트워크 참여 등을 확대하고 있음
  
- 김해시는 특히 기후·환경 정책(예, 제조업체 온실가스 저감, 습지보전), 포

용도시 정책(예, 외국인 주민 증가 대응), 문화유산 기반 정책(예,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글로벌 정책 아젠다와 연계하여 국제협력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함

■ **국제교류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 정비**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단순한 행정교류를 넘어 도시발전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되는 추세임
  -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도시는 관련 조례 및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비전, 목표, 추진체계, 분야별 전략 등을 정비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함
  
- 국제교류·협력의 범위가 향후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김해시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정비, 전담 조직 정비, 해외 협력 거점 구축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IV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1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현황

#### 1)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시기 및 유형별 현황

- 2024년 말 기준 김해시는 6개국 11개 도시 중심의 공식 자매·우호결연 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튀르키예 등 아시아, 북미, 유럽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sup>17)</sup>
- 김해시는 1990년대 초반 일본 무나카타시와의 자매결연(1992)을 시작으로, 베트남 비엔호아시, 미국 셸렘시, 중국 라이시시·우시시 등과 교류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행정 및 문화예술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발전시켜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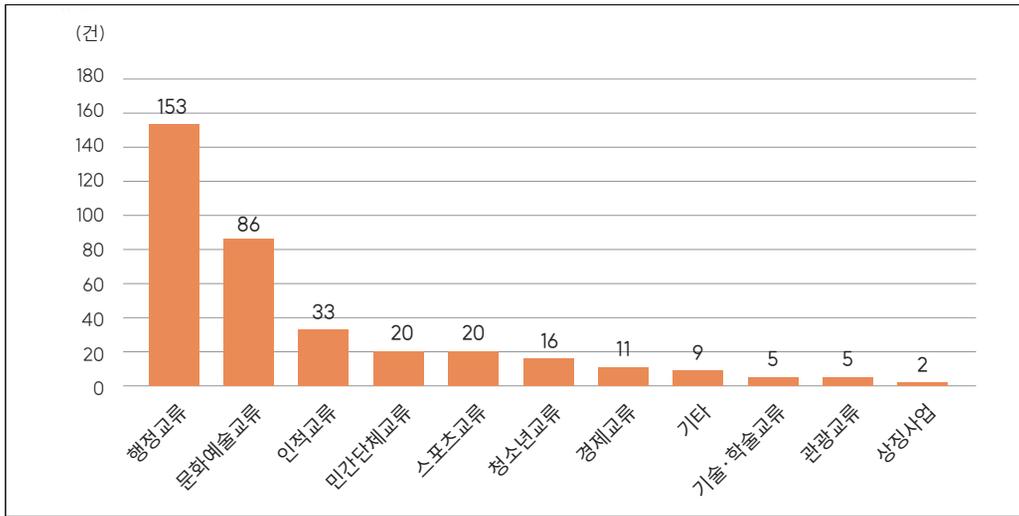
<표 4-1> 김해시 해외 자매·우호 도시 현황

결연일자	국가명	외국도시명	비고
1992-04-22	일본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Munakata City, Fukuoka Prefecture)	자매교류
1996-01-23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Bien Hoa City, Dongnai Province)	자매교류
1997-10-06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라이시시 (Laixi City, Qingdao City, Shandong Province)	우호교류
1997-10-10	미국	오리건주 셸렘시(Salem City, Oregon State)	자매교류
2000-02-28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시 (Ayodhya City, Uttar Pradesh Province)	자매교류
2005-12-14	중국	장쑤성 우시시(Wuxi City, Jiangsu Province)	자매교류
2015-12-15	베트남	떠이닌성(Tay Ninh Province)	우호교류
2017-12-23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Uttar Pradesh State)	우호교류
2022-12-05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 (Lakewood City, Washington State)	자매교류
2024-10-07	튀르키예	초룸주 초룸(Corum)	자매교류
2024-11-08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Dalian City, Liaoning Province)	우호교류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7)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매도시’란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함. 또한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함

- 최근에는 미국 레이크우드시(2022), 튀르키예 초룸(2024), 중국 다롄시(2024) 등과의 자매·우호결연을 통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폭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매·우호결연 도시들과의 국제교류·협력 건수는 총 360건으로,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교류로, 전체의 42.5%(153건)를 차지함. 이는 전국(41.9%)과 유사한 수준으로, 김해시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전통적 국제교류·협력 형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류는 전체 국제교류·협력 건수의 23.9%(86건)를 차지하며, 전국(14.1%) 대비 9.8%p 높은 수준임. 이는 가야문화 기반의 전통문화 자산이 풍부한 김해시의 특성이 국제교류·협력 유형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김해시의 경제교류(3.1%)와 기술·학술교류(1.4%)는 전국 대비 각각 3.1%p, 2.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강화가 필요한 부문으로 판단됨.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라는 김해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산업정책과 연계된 국제교류·협력은 향후 전략적 확장 여지가 큰 분야임
- 또한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교류 비중(4.4%)이 전국(9.5%)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활성화가 시급한 부문으로 파악됨. 그 밖에 스포츠교류나 관광교류, 민간단체교류 등은 전국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나타남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유형별 현황

<표 4-2> 김해시 및 전국 국제교류·협력 유형별 현황

구분	김해		전국	
	빈도(건)	비중(%)	빈도(건)	비중(%)
행정교류	153	42.5	13,671	41.9
문화예술교류	86	23.9	4,598	14.1
인적교류	33	9.2	2,982	9.2
스포츠교류	20	5.6	1,271	3.9
민간단체교류	20	5.6	1,508	4.6
청소년교류	16	4.4	3,092	9.5
경제교류	11	3.1	2,020	6.2
기타	9	2.5	971	3.0
기술·학술교류	5	1.4	1,412	4.3
관광교류	5	1.4	562	1.7
상징사업	2	0.6	503	1.5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관련 제도적 현황

### (1) 조례 제정 현황

- 김해시는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총칙(제1~4조)은 ‘김해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성장·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교류협력,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기본목표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강화, 교류협력 플랫폼 체계화,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가짐

- 교류협력 계획 및 사업 범위(제5~6조)에서 시장은 필요 시 중장기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동 계획에는 비전·목표, 자매·우호도시 전략,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기여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 범위는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분야별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교류, 공무원 교류, 산업·기업 협력, 국제개발협력(ODA), 환경·재난 협력 등까지 비교적 폭넓게 규정되어 있음
  
- 지원 및 민간위탁(제7~8조)에서는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류사업에 필요한 비용, 시설, 교통편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간단체에 국제교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자매도시 주민에게 김해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류의 실질적 효과와 시민 간 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3>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기본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김해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 '교류협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개념을 정의함
제3조	기본목표	• 교류협력의 기본목표는 '글로벌화를 위한 김해 도시 브랜드 강화', '다각화된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플랫폼 체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로 정함
제4조	시장의 책무	• 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함
제5조	계획의 수립	• 시장이 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분		주요 내용
제6조	사업의 범위	•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복지 등 분야별 교류, 아동·청소년 교류, 산업·기업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 시 우수정책 홍보·초청연수, 국제개발협력, 환경보전, 재난·재해구호 등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함
제7조	교류협력의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민간 교류사업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매도시 주민의 시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정함
제8조	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위탁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 시 민간단체에 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이하 생략)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매·우호도시 선정 및 협약 체결(제9~10조)에서는 교류협력 대상 도시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정 기준에는 면적, 인구, 재정 규모, 산업·지역 특성 및 상호 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 역사·문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국제교류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 통제와 사후관리(제11~13조) 조항과 포상(제14조), 시행규칙 위임(제15조)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김해시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김해시 조례’)의 특징을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김해시 조례와 경상남도 조례의 공통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과 적용 범위, 추진계획 체계, 지원 조항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조례의 목적과 기본 방향
  - 김해시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을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발전·성장 기반 확보 수단으로 규정하는 성격이 강함. 반면 경상남도 조례는 공공외교, 국제기구 협력, 글로벌 정책 대응 등 보다 상위 정책 개념을 포괄하고 있음. 즉, 김해시는 도시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외교적 역할과 위상을 강조한다는

##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

### ○ 추진계획 수립 체계 및 내용

- 김해시 조례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음. 반면, 경상남도 조례는 매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음
- 김해시 조례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경상남도 조례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추진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 구조를 강조하고 있음

### ○ 사업 범위- 신규 사업 발굴

- 김해시 조례는 교류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조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
- 반면, 경상남도 조례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관련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공식적인 사업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 재외시민(도민) 지원 조항

- 경상남도 조례는 재외도민과의 교류·지원사업을 명시하여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나, 김해시 조례는 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sup>18)</sup>

18)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범위는 간담회, 고향방문,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의 고향 발전 사업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임

<표 4-4> 김해시와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관련 조례 비교

구분	김해시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을 강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외교, 국제기구 협력 등 상위 정책 개념을 포함함</li> </ul>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의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추진계획 수립·시행 명시</li> </ul>
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원 방안 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민간부문에 대한 협력·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함</li> </ul>
사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사업 발굴을 사업 범위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발굴을 사업의 범위 중 하나로 명시함</li> </ul>
재외시민 (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범위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도민에 대한 교류·지원사업을 사업의 범위 중 하나로 명시함</li> </ul>

자료) 연구진 작성

## (2) 행정조직 및 업무 현황

-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기능은 단일 부서에 집중된 구조가 아니라, 행정국 행정과 교류협력팀을 중심축으로 하되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정책팀, 복지국 여성가족과 외국인복지팀 등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에 분산된 구조를 가짐
  - 이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범위가 전통적인 자매·우호 도시 교류에서 문화예술, 경제교류, 청소년·인적교류를 넘어 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 정책 등으로 확장된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공식적 공공외교 전담 조직- 행정국 행정과 소속 교류협력팀
  - 김해시 행정국 행정과 소속 교류협력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나, 광범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교류협력팀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주요 업무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총괄, 신규 해외 교류도시 발굴,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운영, 주요 외빈 대응 및 통·번역 지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 국제기구 관련 업

무, 가야문화축제 및 주요 지역행사 해외 초청 운영 등임

- 교류협력팀은 언어권별(영어권, 중국·일본권) 실무 대응력이 높고, 장기간 유지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음. 다만, 최근 국제교류·협력의 범위가 전통적 행정교류 외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 국제교류·협력 분야를 기획하고 지원하기에는 인력과 조직 규모가 제한적임
-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기능은 교류협력팀 외에도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 정책팀, 여성가족과 외국인복지팀에서도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정책 발굴, 외국인 통계·DB 관리, 외국인 주민 대상 시민교육,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 운영, 정부·타지자체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복지팀도 김해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을 총괄하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 복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및 가야글로벌센터 운영 지원, 국가별 외국인 공동체 행사 지원 및 언어 통·번역 지원, 고려인 지원, 긴급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다어올림축제 등 다문화 기반 국제교류 행사 운영 등은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기능과 연계됨
  - 외국인 주민의 정주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국제교류·협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의 경계가 약화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음
  - 김해시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지역 내 국제교류·협력의 기반이자 글로벌 도시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김해시 유관 기관들이 국제행사 운영, 해외기관 연계 교류 등 개별적 국제교류 활동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 2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SWOT 분석

- 김해시는 가야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습지도시 등 풍부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증가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그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다만, 국제교류 추진체계의 분산, 전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며, 전통적 행정교류에 비해 민간단체교류, 기술·학술교류, 청소년교류 등 일부 부문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SWOT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 강점(Strengths)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가야문화 등 풍부한 지역 고유문화
  - 김해시는 가야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습지도시 등 글로벌 인지도 확보가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관심 및 교류·협력 수요가 높은 도시임
  - 이를 활용한 해외 도시와의 문화, 학술, 청소년 교류 등 다층적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함
- 경제, 기술 등 산업 분야 국제교류·협력 확대 가능성
  - 기계, 금속, 의생명 등 김해시 주요 산업은 글로벌 기술협력,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등 산업형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 적합함
  - 국제공동연구, 스마트 제조혁신, 친환경 산업전환 분야에서 해외 도시 및 기관과 협력할 여지가 큼
- 다양한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 보유
  - 김해시는 2024년 기준으로 6개국 11개 도시와 공식적인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유지된 해외 도시와의 교류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이 축적되어 있음

-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의 확장성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증가 추세는 지역 내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함
  -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 정주지원, 다문화 축제 운영 등의 경험을 통한 생활 기반 교류 역량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음

#### ▣ 약점(Weaknesses)

- 국제교류·협력 실무 조직 규모와 업무 구조의 한계
  - 국제교류·협력의 범위가 전통적 행정교류 중심에서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전담 인력 규모는 매우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신규 부문을 기획·운영하거나 부서별로 분산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예산 제약에 따른 추진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수요는 행정, 문화예술, 경제, 외국인 정책, 국제기구 대응, 도시 브랜딩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임
  - 단순 행사나 방문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국제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업무 부담 등은 행정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미흡
  - 김해시는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상남도 등과 달리 연차 계획 체계가 부재함
  - 또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민간 네트워크 지원 관련 조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정되어 있음
- 국제교류·협력 유형별 편중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은 행정교류, 문화예술교류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며, 경제교류, 기술·학술교류, 청소년교류 등의 비중은 전국 대비 낮아 개선 필요성이 큼

## □ 기회(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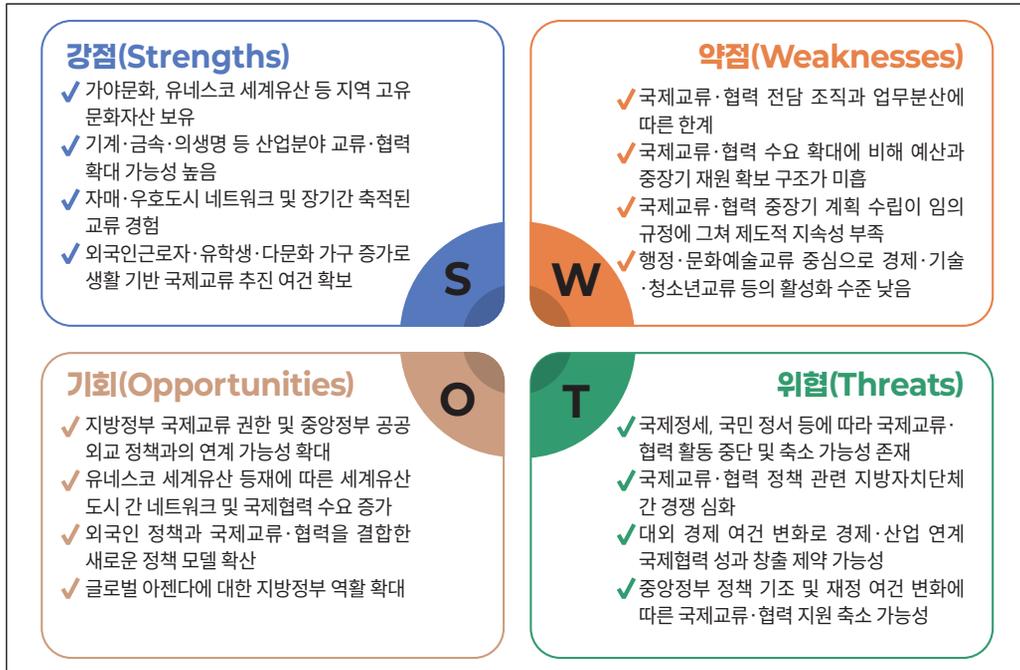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도시외교 확대 추세 강화
  - 「지방자치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권한과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가야사·세계유산 기반 글로벌 협력 수요 증가
  - 가야사를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으로 해당 부문과 관련된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해짐
  
-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모델 확산
  - 최근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이 결합되는 추세로, 부문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증가로 지역 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 모델 구축이 용이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 글로벌 아젠다 연계 가능
  -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환경, 인권 등 글로벌 아젠다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임
  - 김해시는 탄소중립, 환경·생태 부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관련 해외 기술협력, 공동 R&D, 국제표준 대응 등의 산업 정책 기반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음

## ▣ 위협(Threats)

- 국제 정세 및 외교·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국가 간 외교 관계, 국제 정세, 정치·외교적 갈등, 국민 정서 변화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정책 부문임
  - 외교 갈등이나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협력도 중단·축소되거나 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 경쟁 심화
  - 국제교류·협력이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정책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도시 브랜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 선점을 위한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김해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없는 경우 국제적 인지도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여력 축소
  - 세계 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경제교류나 기술 투자·통상 연계 협력, 국제행사 유치 등은 민간 부문의 참여 여건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관련 성과 창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정책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 국비 지원 구조 등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나 재정 여건 악화 시, 국제교류·협력 관련 국비

지원 축소 또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협력 추진에 외부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2)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SWOT 분석

### 3 | 김해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로드맵

#### 1) 기본 방향: TIS

- 김해시는 도시의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국제교류·협력의 전략적 전환과 정책 간 연계, 전담 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기본 방향의 키워드는 전환(Transition), 연계(Integration), 체계(System)로 정함

#### ▣ T-전환(Transition)

- 김해시는 고유 자산과 정책 수요를 결합한 전략형 국제교류·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간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은 예산과 인력 제약 등으로 행정교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제교류 유형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전략적 전환이 요구됨
- 특히 가야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라는 차별화된 문화생태자산과 지역 산업의 확장 가능성, 외국인 주민 증가라는 도시 특성을 국제교류·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 I-연계(Integration)

- 국제교류·협력 유형의 확장에 따라 정책 부문 간 연계형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생활 기반 국제교류·협력은 더 이상 부수적 정책이 아닌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임
  - 동시에 문화예술, 인력, 경제 등 여러 정책 분야가 연계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

## □ S-체계(System)

- 김해시는 분산된 국제교류·협력 기능의 조정과 단계적 전담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현재 김해시는 행정교류 중심의 전통적 교류·협력은 교류협력팀이 전담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국제교류·협력 유형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나, 이들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부족함
- 단기적으로는 내부 협업 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 또는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2)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로드맵

### (1) 단기(1~2년): 국제교류·협력 기반 정비 및 전략 수립 단계

#### □ 목표

- 단기적으로 김해시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국제교류·협력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 김해형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전략적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의무화가 필요함
  - 현재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구조적으로 약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단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계획 수립·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해형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은 국제교류·협력 유형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할 필요가 있음

- ① 국제교류·협력의 비전과 중장기 목표, ② 경제·산업, 문화·관광·브랜딩, 외국인 정책, 글로벌 정책 아젠다 등 분야별 전략 방향, ③ 부서 간 정책 연계 및 민간 참여 확대 방안, ④ 지역 주민의 국제교류·협력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 전략 등
- 특히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은 도시 브랜딩 전략과 긴밀히 결합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협력은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지역 주민이 김해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는 시민 대상 소통 전략, 국제교류·협력 성과의 지역 환류 방안,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구상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국제교류·협력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 현재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교류협력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정책팀, 외국인복지팀, 유관 기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는 국제교류·협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업무 분절 혹은 중복, 전략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단기적으로는 조직 개편보다는, 관련 부서들 간의 내부 협력체계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우선 내부적으로 국제교류·협력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정례적 참여를 도모함
  - 협의체를 중심으로 김해시가 추진하는 주요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일정을 공유하고, 연계 방안을 논의함
- 아울러 행정 내부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거버넌스도 병행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대학, 문화·예술 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의례적 공공외교 활동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 가야문화·유네스코 기반 시범사업 발굴·추진

- 단기 단계에서는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과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징적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가야문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등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들을 결합한 국제교류 시범사업 발굴·추진은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장 가능한 기반이 됨
- 단기 단계의 시범사업은 향후 국제행사의 파일럿 프로그램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가야문화 국제학술대회, 세계유산 공동 전시, 창의도시 공예교류전, 람사르습지도시 국제포럼, 가야문화학당 프로그램 등을 분산 개최함으로써, 김해시의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대외 인지도를 선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 더불어 가야문화·유네스코 기반 국제교류는 청소년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층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국제교류·협력 유형 중 청소년 교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 필요성이 큼. 따라서 시범사업 설계 시 전략적으로 청소년을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해외 청소년 교류 및 김해 청소년의 국제 활동 참여를 가야문화 학습·체험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2) 중기(3~5년): 국제교류·협력 확장 및 고도화 단계

▣ **목표**

- 중기 단계는 단기 단계에서 구축한 제도적 기반과 협업 체계를 토대로,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유형과 주체를 본격적으로 확장·고도화하는 시기로 설정함
  - 중기 단계에서는 시 주도의 교류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 민간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국제교류·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지역 산업 연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본격화**

- 중기 단계에서는 김해시 산업 구조와 정책 수요를 국제교류·협력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산업 연계형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기계·금속, 부품, 의생명 산업 등이 집적된 제조업 중심 도시로, 해외 도시, 기업, 연구기관 등과 기술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 단순한 방문이나 홍보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산업·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외 기업 및 산업 클러스터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기술 연계형 교류는 해외 기업 유치와 투자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네트워크가 중장기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 공동 생산, 기술 이전 등으로 연결될 경우, 국제교류·협력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김해시는 직접적인 사업 주체라기보다 민간과 해외 파트너를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 주민 참여형 생활 기반 국제교류 확대**

- 중기 단계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국제교류·협력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 자체가 국제교류·협력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예를 들어,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행사, 시민 교류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생활 속 교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sup>19)</sup>
- 이때 외국인 주민이 김해시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생활 기반 국제홍보 주체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인 주민의 정착 스토리와 지역 사회 참여 경험이 SNS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확산될 경우, 행정 중심 홍보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범위를 행정 영역에서 생활 영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임

#### ▣ 국제도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연계 강화

- 중기 단계에서는 단기적 경제성과보다 김해시의 글로벌 위상을 구조적으로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국제도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칭)2030가야문화유산세계엑스포는 김해시가 보유한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자산을 국제사회에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엑스포를 계기로 김해시는 유네스코 및 람사르 가입 도시 네트워크와 글로벌 아젠다 기반 네트워크 연계를 확장하고, 정책 역량과 도시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음
-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엑스포 개최나 네트워크 가입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필요가 있음
- 공동 포럼, 정책 교류, 연구 협력,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엑스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이후에도 지

19)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화합마당, 외국인 대표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외국인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김해시는 글로벌 의제를 단순히 수용하는 도시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실천·확산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3) 장기(5년 이상):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 단계

#### ▣ 목표

- 장기 단계는 단기·중기 단계에서 축적된 국제교류·협력 경험과 성과를 제도화하고, 이를 도시 성장 전략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설정함
  - 이 시기부터는 국제교류·협력이 개별 사업이나 부수적 행정 영역을 넘어, 김해시의 중장기 도시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국제교류협력 성과의 정책 환류 체계 정착

- 장기 단계에서는 국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사례,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성과가 시정 전반으로 환류되는 정책 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협력이 개별적인 교류 성과에 머물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산업 정책, 도시계획, 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 등 다양한 시정 영역에 전략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제교류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 정책 사례, 해외 도시의 제도·운영 방식, 국제기구의 정책 아젠다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공식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산업·기술 분야 국제교류 성과는 산업 정책과 연계하고, 외국인 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은 인구·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경우, 국제교류·협력은 도시 성장 전략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정책 혁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 (가칭) 김해 글로벌재단 설립 검토

- 국제교류·협력의 범위가 산업, 문화, 외국인 정책, 국제기구 연계 등으로 확장되고 전문성과 기획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출연기관 형태의 전담 조직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제한된 행정 인력과 분산된 조직 구조로는 국제교류·협력의 장기적 기획, 민간 네트워크 관리, 국제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가칭) 김해 글로벌재단은 국제교류·협력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서, 행정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민간 영역을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담 조직은 행정조직과 달리 민간 인력 활용, 사업별 유연한 조직 운영, 중·장기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하여 단년도·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 수행이 가능함
  - 특히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국제행사의 기획·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국제공모사업 및 국제기구 연계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준민간·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 관리할 수 있음<sup>20)</sup>
  - 또한 전담 조직은 지역 대학, 기업, 시민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제교류 성과의 지역 내 환류를 도모하고, 정책 간 연계 강화, 국제협력 성과의 브랜드화가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김해시의 글로벌 대응 역량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 김해형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

- 장기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함

20) 국제교류·협력 전담 조직 운영 사례로는 부산광역시(부산글로벌도시재단), 전북특별자치도(전북국제협력진흥원), 수원시(수원시국제교류센터), 평택시(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이 있음. 해당 조직은 도시외교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 홍보와 국제행사 운영, 인적교류 및 인재양성, 개발협력 및 ODA, 시민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인 정주 및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람

- 이를 위해 국제행사, 해외 교류사업, 국제도시 네트워크 참여, 국제기구 협력, 해외 홍보 활동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김해다운 이야기’와 도시 이미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려는 전략이 필요함
- 단편적인 도시 홍보가 아니라 김해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축적하는 과정이 요구됨
- 이러한 노력이 누적될 경우 김해시는 단순한 고대 문화유산과 현대 산업, 다문화적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음
- 이는 국제교류·협력의 장기적 성과이자, 김해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독자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3)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기본 방향 및 로드맵

## 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장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김해시가 지향해야 할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을 글로벌 도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음. 분석 결과, 글로벌 도시는 글로벌 보편성과 지역 고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유형이며, 국제교류·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을 확인하였음
  - 특히 최근 국제교류·협력은 행정 및 문화예술 교류를 넘어 산업, 인적 교류, 외국인 정책, 국제기구 및 글로벌 아젠다 대응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중앙정부 외교의 보조적 주체가 아니라 독자적 국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정책 환경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국제교류·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산업 연계, 외국인 정책 연계, 국제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 질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히 외국인 주민 증가, 「공공외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제도적 기반, 국제교류 전담조직 설립 확산 등은 국제교류·협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해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여전히 전통적인 행정교류와 문화예술교류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국제교류 관련 기능이 교류협력팀, 외국인정책팀, 외국인복지팀, 유관 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 연계와 성과관리 측면의 한계가 존재하며, 중장기 계획과 전담 체계 역시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구조적 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도시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협력의 전략적 전환(Transition)과 정책 간 연계(Integration), 전담 체계(System) 강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것임
  - 특히 김해시가 보유한 가야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람사르습지도시 자산은 역사·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국제교류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2030가야문화유산세계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이러한 자산을 국제사회에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기(1~2년)는 국제교류·협력의 기반 정비와 전략 수립 단계, 중기(3~5년)는 국제교류·협력의 확장과 고도화 단계, 장기(5년 이상)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확립 단계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국제교류·협력의 전략적 전환과 정책 간 연계 중요
  - 김해시는 자매·우호도시 중심의 전통적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교류·협력을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국제교류·협력은 단일 부서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산업, 문화, 외국인 정책, 인재양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

- 특히 외국인 주민을 국제교류·협력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인식하고, 생활 기반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구조는 김해시 글로벌 도시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

○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체계 강화 필수적

- 김해시 국제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조례상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성과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국제교류·협력이 단체장 임기나 부서별 사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협력의 전문성과 확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단계별 로드맵에 기반한 점진적 고도화 전략 지향

-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에는 역사·문화·환경·산업 등 부분 간 다층적 연계형 국제교류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 성과가 시정 전반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이러한 접근은 국제교류·협력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도시 성장 전략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글로벌 김해’라는 도시 브랜드를 국제교류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

- 국제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해라는 도시의 이름과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있음
- 즉, 가야문화라는 고유한 역사적 자산을 중심으로 문화생태를 아우르는 도시 고유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제행사와 해외 교류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가야문화유산을 매개로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도시, 김해’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5.05.15.), “오월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전쟁폭력에 저항 인권도시들 뭉쳤다”.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5.07.23.), “광주 인권정책 경험, 세계인들과 나눈다”.
- 김상규(2024),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9(4), 5-26.
- 김판석(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5-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540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외교법」 법률 제1927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2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법률 제20870호.
- 성태규·문희철·정연정(2006),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순창군 보도자료(2022.10.12.),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연맹과 MOU 체결”.
- 순창군 보도자료(2024.09.03.), “순창군, 12개국 참가 국제 소프트테니스 대회 성료”.
- 신기현(1998),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연구, 6, 85-103.
- 안산시 보도자료(2017.09.06.), “안산시 독일과 손잡고 '차세대 섬유산업' 선도한다”.
- 안산시 보도자료(2020.11.09.), “안산시, 한독상의회 상생 협약...외자 유치 맞손”.
- 영동군 보도자료(2022.10.28.), “영동군, 자매도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우호협력 강화 협약”.
- 영동군 보도자료(2025.04.24.), “영동군-몽골 사인산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맞손'”.
- 우양호·이정석(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 이석환, 이충희(2022),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영향요인: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6(2), 175-201.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2.07.21.), “과기정통부인천시, UN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5.11.27.), “인천시, 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 개최...국제협력 허브 위상 강화”.
- 전라북도(201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전라북도.
- 정낙헌·이홍규(200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센터의 설치시설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제교류센터사례를 중심으로-, 24(3), 79-86.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3.11.29.), “제주-세계 지방정부 간 문화교류협력 다각화 시동”.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08.01.), “한중일 청소년들, 제주해녀 발자취 찾아가다”.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3.09.14.), “전북 알리미 제이비(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위촉”.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5.10.31.), “도내 8개 대학, 중국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박람회’ 공동 개최”.
- 충청남도 보도자료(2025.10.25.), “1500년 인연, 평화번영의 미래 연다”.
- 충청남도 보도자료(2025.10.26.), “문화교류로 지방외교 ‘새 장’ 펼쳤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0.30.),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 홍순권(2010), 글로벌리즘과 지역문화연구, 석당논총, 46, 1-17.
- Getz, D. (2008). “Event tourism: Definition, evolution, and research.” *Tourism Management*, 29(3), 403-428.
- Robertson, R. (1995)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M. Featherstone, S. Lash, &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pp.25-44, London, Sage.
- Pluijm, R. van der & Melissen, J. (2007).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 Acuto, M. & Rayner, S. (2016). “City networks: breaking gridlocks or forging (new) lock-ins?” *International Affairs*, 92(5), 1147-1166.
- OECD (2023). *City-to-City Partnerships to Locali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CLG (2024). *Towards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hae.go.kr/>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Aerospace Valley 홈페이지 [www.aerospace-valley.com/](http://www.aerospace-valley.com/)

| 부록 |

▣ 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전담 기관 사례

구분	내용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3.7.1)</li> </ul>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 부산국제교류재단 개소</li> <li>2019년 부산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2023년 부산영어방송재단과 통합·확장 후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출범</li> </ul>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미디어 전문기관</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본부(글로벌교류본부, 영어방송본부) 1담당관 6팀</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및 인재양성: 해외 협력도시 교류 행사 지원·운영, 글로벌 인턴십 운영,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li> <li>외국인 주민 지원: 외국인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유학생 지원, 한국어 강좌, 세계시민교육,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등</li> <li>그 외 영어방송(부산영어방송, 유튜브 운영), 개발협력(ODA) 운영 등</li> </ul>
전북 국제협력 진흥원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15.5.29)</li> </ul>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전북국제교류센터 개소</li> <li>2023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범</li> <li>2024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내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li> </ul>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속의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실(기획협력실, 교류협력실) 4팀 1센터(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및 인재양성: 해외 협력도시 교류 행사 지원·운영,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청년 해외진출사업 등</li> <li>외국인 주민 지원: 외국인 지역정착 교육,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지원, 세계인축제운영, 외국인 동호회 지원 등</li> <li>그 외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등 전북형 ODA 사업 운영, 전북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li> </ul>
수원시 국제교류 센터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11.4.1)</li> </ul>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개소</li> </ul>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을 글로벌 도시로 선도하는 공공외교 핵심기관</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팀(경영기획팀, 교류협력팀)</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및 인재양성: 해외 협력도시 교류 행사 지원·운영, 수원 청년 대상 국제교류서포터즈(SCVA) 운영, 화상 언어교류, 세계시민교육 등</li> <li>외국인 주민 지원: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데이 운영,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 등. 그 외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 등 ODA 사업 운영</li> </ul>
평택시 국제교류 재단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13.11.11)</li> </ul>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평택시국제교류센터 개소</li> <li>2024년 외국인지원 전담부서 신설</li> </ul>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도시 평택」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실 2센터(한미·국제교류센터, 세계시민센터) 5팀</li> </ul>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및 인재양성: 한미문화행사, 한미친선지원사업, 해외 협력도시 교류 행사 지원·운영, 세계문화주간 운영, 여학역량 강화 사업 등</li> <li>외국인 주민 지원: 외국인상담센터, 한국어학당, 찾아가는 한국문화교실 운영,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글로벌 서포터즈,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운영 등</li> </ul>

##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김해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인	쇄	2025년	12월	31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http://www.ghri.re.kr)  
ISBN : 979-11-997022-0-2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GHRi** 김해연구원  
Gimhae Research Institute

50969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 055-344-7700

